

[기획] >> 3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축제

[사회] >> 4면
현장실습 학생의 죽음

[사회] >> 5면
서울공화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인물] >> 12면
이지원 어린이 동화책 기획자



6명의 후보가 꿈꾸는 우리학교의 미래는?



우리학교 제12대 총장 선거가 이번 달 29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총 6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처음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선거 주요 일정과 후보별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6,7면에서 계속

정나윤 기자 02myun@hufs.ac.kr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학교 학생홍보대사 ‘새로미’ 방역수칙 위반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학생홍보대사 새로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었다. 새로미는 이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근처 식당 ‘화덕’에서 화식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정부에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르면 수도권은 비접종자와 접종자 각각 4명씩 총 8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미는 방역수칙의 허점을 이용해 17명이 세 개의 테이블에 인원을 나눠 화식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이에 새로미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과문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지 3일 만에 삭제됐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사과문 작성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은 글이었다”며 “새로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창호 우리학교 홍보실 부장은 “홍보실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실에서 새로미에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로미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동대문구청에 신고한 우리학교 재학생 B씨는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17명이나 되는 인원으로서 모임을 가졌단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새로미에 대한 비난이 과열됐다”며 “신고 후 사실을 알리는 게 오히려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선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우리학교 방문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새로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적용된 방역수칙의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우리학교 EU연구소,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모든 것’ 특강 개최해

이번 달 8일 우리학교 EU연구소는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란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EU 융합 전공을 배경으로 우리학교 문과생에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김봉철 우리학교 EU연구소 소장(이하 김 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문과생이 이과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우리학교 어문계열 학생에게 도움 될 주제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소장은 유럽사회의 인문학적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유럽지역학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을 강조했다.

특강은 이번 달 8일과 11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회차 특강은 송현주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가 ‘빅데이터, 그리고 AI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특강에선 기업의 시장 흐름 예측에 활용된

빅데이터 및 AI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2회차 특강은 조재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가 ‘컴퓨터 공학: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특강에선 인공지능의 개념과 디지털 관련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강서현(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특강이 유럽지역학에 국한되지 않고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새롭다”며 “앞으로 이런 특강이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EU연구소에선 2010년부터 현재까지 EU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EU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유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스카디안 산업스카디안 산업스카디안 산업스카디안 등 유럽과 우리나라의 연관성이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10.18(월) ~ 10.29(금)	2021.11.22(월) ~ 12.03(금)
고사장 발표	11.03(수) 15:00	12.08(수) 15:00
면접전형	11.06(토) 10:00 예정	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17(수) 15:00	12.22(수)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2(월) ~ 11.26(금)	12.27(월) ~ 12.31(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점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공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한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화증명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d.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 개교 67주년(글로벌캠퍼스 41주년) 기념식 및 초청 만찬 열려

지난 10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우리학교 개교 67주년(글캠 41주년) 기념식 및 초청 만찬이 열렸다. 이번 행사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김종철 우리학교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교무위원△교직원△동문 등 약 160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인 개교 67주년(글캠 41주년) 기념식은 △개식△국민의례 및 내빈소개△연혁보고△기념사△축사△공로패와 감사패 시상△우리학교 발전 영상 상영△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김 이사장은 “4차 산업시대에 우리학교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크게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 김 총장은 우리학교가 지난 9월 대학혁신지원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성과를 축하하는 한편 지난 9일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이번해 대학순위 평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대학순위평가 종합부문에서 지난 2019년 진행한 순

위평가로부터 5계단 떨어진 18위를 기록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과대학 및 졸업학점 개편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며 “글캠의 경쟁력을 위해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캠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해온 지금까지의 행보를 기념하며 △모현파출소△모현119 안전센터△정진성 우리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국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시상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2부 행사로 개교 67주년(글캠 41주년) 기념 동문 초청 만찬이 이어졌다. 2부 행사는



▲우리학교 개교67주년(글캠 41주년)기념식

△개식△축하공연△환영사△흡스어워드(HUFS Awards) 시상△우리학교발전상 PT△글로벌도서관 설계안 PT△만찬△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선 장웅 아나운서(이하 장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장 아나운서는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며 “우리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개교 67주년 흡스어워드 시상식이 이어졌다. 흡스어워드는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영어·영어 73)(이하 송 부회장)과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이사(통번역·마인어 84)가

수상했다. 송 부회장은 “우리학교 출신이란 사실이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엔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김은유(통번역·영어 15) 글캠 총학생회장은 “설캠 측도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양캠 간 통합이 이뤄지는 자리라고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주원(영어·ELIT 18)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글캠의 역사를 알아가는 자리였다”며 “좋은 주제의 이야기도 많았지만 앞으로의 행사에선 개선점에 대해 다루는 시간도 많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양캠퍼스 총학생회 ‘외대 119 전체학생총회’ 개최해

지난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오바마홀에서 ‘외대 119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생총회는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 ‘온(ON)’(이하 글캠 총학)이 공동 주관했으며 제12대 총장 후보 선거에 대한 학생 요구안 채택과 총장선출제도 민주화에 대한 전체 학생 결의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학생총회는 △보고안전△논의안전△결의안전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안전으로 △총장후보선거 일정△양캠퍼스(이하 양캠) 선거 대응 현황 보고△학생총회 이후 양캠 선거 대응 계획 보고가 포함됐다. 양캠 총학은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총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

은 카드뉴스△학생 정책 요구안△학생 총회 참가 선언단과대학별 대항전 등을 진행했다.

논의 안전은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상정됐다. 제12대 총장 후보 선거에 대한 학생 요구안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채널 마련△법안책무성 강화 요구 및 외대 재정건전성 강화△장학 예산 확충△캠퍼스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9가지다. 김은유 글캠 총학생회장은 “불통행정이 재학생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학교의 병이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가 컸던 최근 2년간 학교 정책에 관한 소통이 아쉬워 이를 새로운 총장과 극복하고 싶단 입장을 전했다. 이주원 설캠 총학생회장은 양캠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지적하

며 설캠의 일부 건물 엘리베이터 신설과 글캠의 공학관 및 교양관의 노후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양캠 총학은 9개의 안전이 후보자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논의 안전 이후 학생 의결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총학 회의진행세칙 제32조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찬반표결 안전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또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학생총회 개최가 성사된다. 이번 학생총회는 설캠 학생 848명(100.9%), 글캠 학생 748명(109%)이 참석하며 개최가 성사됐다. 또한 총장 후보에 대한 학생 요구안 채택 안전에서도 설캠은 △찬성(947표)△반대(1표)△기권(6표), 글캠은 △찬성(852표)△반대(0표)△기권

(4표)로 학생 요구안이 채택됐다. 우경주(사범·중국어 19) 씨는 “양캠 총학이 함께한 최초의 학생총회라 뜻깊었다”며 이를 계기로 제12대 총장 선거도 활발한 투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단 입장을 전했다. 이다경(통번역·스페인어 21) 씨는 “이번 학생총회를 계기로 우리학교 학생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양캠 총학이 노력한 만큼 다음 총장은 학생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우리학교 극지연구소 ‘2021 북극연구공동학술대회’ 개최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외대국제교육센터에서 ‘2021 북극연구공동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학교 △극지연구센터△러시아연구소△환경과학연구소△EUI연구소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개회식에선 최우의 우리학교 극지연구센터 소장(이하 최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부무시장△강성호 우리학교 극지연구소 소장△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학술대회 1부에선 우리학교 극지연구센터가 러시아 북극권 개발 확대에 따른 △극지활동 기본법 제정△사회적 변화△평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극지활동 기본법의 제정과 평가’에서 김종철 우리학교 EUI연구소소장(이하 김 소장은 극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했음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과 같은 공통의 원칙에 기반해 남극과 북극에 대한 법제의 차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극지지역 국내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최신 북극 대기 연구동향에 대한 우리학교 환경과학연구소의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발표에선 차례로 △산업시대 이후 유럽의 블랙arbon 농도 변화△블랙

arbon 영향평가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제언△기후변화 진단에 대한 연구가 공표됐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송민영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북극지역의 기후변화를 설명하려면 해당 지역의 블랙arbon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2부에선 우리학교 EUI연구소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와 함께 우리나라와 유럽의 북극에 대한 △전략△정책△환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북극 정책△북극 패권 경쟁의 방위산업△북극 지역 내 갈등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북극의 이권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던 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극의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북극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최 소장은 “우리학교 극지연구센터의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극지학 교육 프로그램과 극지연구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극지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학문 분야로 떠오른 극지학을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융합인재대학 ‘2021 Ingenium K-Project’ 릴레이 특강 개최해

이번 해 9월부터 3개월간 우리학교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은 국제기구 진출의 전망과 약속을 주제로 ‘2021 Ingenium K-Project’의 두 번째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학기에 진행한 2021 Ingenium K-Project는 △문화 번역△예술△항공△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초청한 릴레이 특강이다.

릴레이 특강의 △1차△2차△3차△4차는 각각 △한국문학의 번역△국제원자력기구△유네스코(UNESCO)와 세계문화유산△미래 항공 이동수단에 관한 주제로 구성됐다. 9월 16일에 진행된 1차 특강에선 한국문학 홍보 번역의 변화란 주제로 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25일에 진행된 2차 특강에서 한범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는 국제기구 취업에 관한 정보를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3차와 다음 달 9일에 진행된 4차 특강에선 각각 박상미 우리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오

인선 주식회사 숭비 대표이사가 특강을 진행한다. 조문환 우리학교 융인대 학부장은 “본 특강이 학생의 모듈 선택과 진로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며 외국어와 산업 간의 융합 조화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진(융인·21) 씨는 “융인대에 입학 후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할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단 소감을 전했다.

융인대는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전문가 특강△콘퍼런스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도 △통·번역△패션△한류 문화△IT 전문가를 초청해 미래를 만드는 특강 시리즈를 개최한 바 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10.11(월) ~ 10.25(월)	2021.11.15(월) ~ 11.29(월)
고사장 발표	2021.11.03(수) 15:00	2021.12.08(수) 15:00
면접전형	2021.11.06(토) 10:00 예정	2021.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11.18(목) 15:00	2021.12.23(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11.22(월) ~ 11.26(금)	2021.12.27(월) ~ 12.3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할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tkirk College)
- 아. 추가학점 이수특례 신설(논문·출판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2 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지난달 6일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8살 홍정은 군이 이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했다. 본래 항해 보조와 고객 응대를 하기로 돼있었지만 잠수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 요트

밑에 붙은 조개를 없애던 도중 익사한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의 반복된 죽음과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레저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은 군(이하 홍 군)은 지난 9월 27일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취업지원관이 작성한 실습계획서에 따르면 홍 군은 요트가 선착장에 정박할 때 밧줄을 받아 묶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업무를 하기로 돼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 업체 대표 황 씨는 홍 군에게 바닷속으로 잠수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끌개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홍 군은 구멍조끼와 공기통 같은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30분간 작업을 해야했다. 홍 군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황 씨는 그제야 장비를 빌려왔는데 공기통과 연결하는 호스기에 문제가 있었고 부력 조절 장비도 몸에 맞지 않았다. 장비에 문제가 있어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홍 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몸에 찬 12kg의 납 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세 차례의 자체 구조 실패 후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 만에 응급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홍 군은 이미 숨져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를 요구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경험 △면허 △자격 등을 가진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선 안 된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없던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잠수 작업은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완료한 후 감시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안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습생 파견이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참여기업’이란 이름으로 현장실습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요트 업체도 헬거워진 심의 과정을 거쳐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인정됐다.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1월 제주지역 생수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하 이 군)의 죽음이 있었다. 이 군은 업무를 배운지 단 5일 만에 생수 △운송 △적재 △포장 업무의 대부분을 혼자 도맡아 하다가 적재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홍 군과 마찬가지로 2인 1조 원칙과 감시원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도한 업무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같은 해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센터 해지 방어팀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은 영업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4년 CJ 진천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김동준 군도 과도한 업무 환경 속에서 업무의 미숙함과 희식 거부 등의 이유로 선배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생을 스스로

감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실습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작업을 통한 △실습 교육 △이론 습득 △현장실무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생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현장실습은 학교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현행 현장실습제도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업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 기업엔 숙련된 전문 교수 인력과 일과 교육을 통합하는 프로그램 등 학교가 갖출 수 없는 교육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중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6%(1,496명), 5인에서 30인 미만은 31.5%(7,829명)로 전체(24,938명)의 37.5%를 차지했다. 특성화고 학생의 4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한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현장실습 담당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 등은 불가능하다. 10인 이하 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A 학생은 “실습을 갔더니 업무 지시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다”며 “일주일 내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청소만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직업을 충분히 고민하거나 탐색하지 못한 채 곧장 직장이 결정되거나 전공과 상관없는 곳으로 현장실습을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정해진 직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이번 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졸업자 유지취업률’을 보면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자 중 4월 1일 기준으로 일하던 취업자가 약 6개월 후인 10월 1일에도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6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중소 사업장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단기 노동력 공급 통로로 현장실습을 악용해왔다”며 “현장실습은 이제라도 폐지돼야 마땅하고,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은 “취업을 미끼로 한 죽음의 시한폭탄인 현장실습을 멈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이 노동하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선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과 노동자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도입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에서 현장실습생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돼 제140조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보장 등의 내용이 빠진 노동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홍 군이 산안법 제140조에 적용받으려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봐야 한단 답변을 했다. 사회적 인식과 실제 법 적용 모두 현장실습생이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현 특성화고등학생관리연합회 이사장은 “현장실습제도는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노동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노동법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차단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현장실습 제도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배경내 인권활동가는 역사적으로 청소년 노동이 항상 존재했음에도 청소년이 일터에 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노동의 주체로 존중받기 어렵단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노동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어른과 착취당하는 청소년의 모습 또한 사회에서 가려진다. 그는 “노동조건이 나쁘다면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유해할 텐데 사람들은 노동조건을 문제 삼지 않고 청소년이 공부까 아닌 일을 하고 있던 사실을 문제 삼는다”며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권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인권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10th Sep. 2009/ 1st Sep. 20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유망 기업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하는
한국인이 주인이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예술문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여러나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열과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www.kup.co.kr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싹 틔우려면

수도권 집중화란 △경제△문화△사회△정치 등 각종 분야의 역량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흡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으며, 우리나라 GRDP(지역내총생산)*의

절반은 수도권에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인구 감소△공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은 수도권 집중화의 △역사△현황△문제점△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팽창하는 수도권, 쇠퇴하는 지역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역사는 삼국시대 당시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한강변에 위치했던 약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오늘날의 도시 발전은 서울이 1394년 조선왕조의 수도가 되면서 시작됐다. 19세기 말 개항기엔 △상수도△전기△전차△철도의 시설이 도입되며 근대도시의 틀을 갖췄다. 그 후 식민 지배와 군사 정권 시절의 경제 개발을 거치며 서울 중심의 발전이 이뤄졌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추진돼 온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스템은 권력의 집중을 낳았으며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국가 정책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구축되며 경제 및 인구 집중의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으로의 경제 및 인구 집중 현상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난 8월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1,000대 기업은 △서울 525개△경기 181개△인천 37개에 달해 74.3%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매출액 비중은 △서울 64.9%△경기 19.5%△인천 2.5%를 차지해 86.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수도권보다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측면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고소득△고숙련△고학력 일자리가 많은 상위 39개 지역 중 82%인 32개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었다. 반면 하위 54개 지역엔 단 한 곳만이 경기도 연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있어 취업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5,182만 9,000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50.2%인 2,604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돌파했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넘어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기준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2047년경엔 △경기△세종△인천△제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나머지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49.8%까지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18일엔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2곳△경남 11곳△전북 10곳△충남 9곳△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이어 △대전 투입 △정책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지원책도 내놓았다.

지방 소멸이 가시화된 현상으론 지방 대학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

태를 들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해 전국 대학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총원율은 91.4%로, 총 4만 486명의 정원이 미달됐다. 미충원 인원은 주로 지방 대학과 전문 대학에 집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수도권 입학 인원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이번 해 40.4%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4년엔 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41.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 대학의 폐교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학교 교직원들은 물론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 소멸로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치권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족됐다. 이와 더불어 참여 정부에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중앙 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현 정부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를 폐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폭 축소해 중앙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수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란 기조하에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시책을 수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관련 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을 계승 및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체계를 다시 도입하는 한편, 변화된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역발전투자협약△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 관리△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논의와 집행이 꾸준히 진행돼왔지만 아직까지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 여전히 완전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현 정부에선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차기 정부에서 이전을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각종 사회 기반 시설과 기업도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진중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출자 및 재출자 기업을 한데 묶어 이전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제2본사’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의 청년 소멸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흐름을 막는 방법으로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대 문화 프로젝트 등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양성평등 면에서도 지역과 농촌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지역 인력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재인식해야 한단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희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지방 대학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는 ‘인재의 댐’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직업교육대학△평생교육대학 등 기능별로 재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엔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근엔 대선 정국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줄이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GRDP(지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즉,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선출

이번 달 5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47.85%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 2014명에게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6.2%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재명(34.2%)△안철수(4.3%)△심상정(3.7%)가 이었다.

사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일상 회복 2단계 아직 어려움”

일상 회복 1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원 가동률은 10일 기준 58.3%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은 74.8%를 기록해 비상 방역 계획 기준치인 75%에 근접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 요소수 대란 일어나

지난달 중국의 석탄과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농업과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의 품귀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달 10일 중국의 요소 1만 8700톤을 수입하면서 급한 불은 꺼으나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만큼 품귀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

국제 중국, 40년 만에 역사 결의 채택

중국 공산당이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 결의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역사 결의가 채택된 것은 1945년 마오쩌둥 주석과 덩샤오핑 주석 때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문일현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는 이번 역사 결의에 대해 “시진핑 1인 통치체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가 꿈꾸는

이번 달 29일을 시작으로 우리학교 제12대 총장 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역대 총장 선거 가운데 대학구성원참여직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학내 구성원 모두가 투표권을

◆제12대 총장 선거의 주요 일정

지난달 29일 차기 총장 후보 등록이 모두 완료됐다. 후보자는 △박흥수 우리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이하 박흥수 후보)△김유환 우리학교 프랑스어학부 교수(이하 김유환 후보)△김유경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김유경 후보)△최종찬 우리학교 인도어과 교수(이하 최종찬 후보)△김응운 우리학교 프랑스학과 교수(이하 김응운 후보)△박정운 우리학교 ELIT학과 교수(이하 박정운 후보)로 총 6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선거 운동은 이번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17일에 열릴 1차 공개토론회와 25일에 진행될 2차 공개토론회를 마친 후 △이번 달 29일 1차 투표△다음 달 1일 2차 투표△다음 달 3일 3차 투표까지 총 3번의 투표를 통해 차기 총장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엔 △교수 452명△직원 251명△학생 15,327명의 총 16,030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6명의 총장 후보자별 약력 및 핵심 공약

아래 표는 후보별 약력과 공약을 정리한 내용이다. 약력은 우리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해 최근 3개만을 기재했다. 핵심 공약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의 소견문과 정견 발표 영상을 기반으로 정리했다.

◆공약 총 분석

① 인프라 개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총 33개 동 중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18개뿐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도 강의실과 화장실 등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학생 수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과학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교내에 △공학관△교수학습개발원△교양관 등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 양캠퍼스(이하 양캠)의 노후화된 건물·시설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신설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한 글캠 스마트도서관 신설을 공통적으로 내세워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내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설캠의 협소한 부지와 글캠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모든 후보는 설캠의 지하캠퍼스 혹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캠퍼스 규모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글캠의 경우 △경전철 노선의 외대역 신설△교통 터널 건설△대중교통 노선 확대△셔틀 노선 확충 등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약을 펼쳤다. 또한 장애 학생이 불편함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후보는 장애인 학생 지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장학금 확대

지난달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인 '대학 무상화 및 평준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대학등록금 무상화에 찬성했다.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한 핵심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비싼 대학등록금과 부족한 대학 운영비'를 꼽았다. 이에 모든 후보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가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인 HUFSan 장학금 등을 확대해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유경 후보는 고시반 합격자 특별장학금 지급△최종찬 후보는 근로장학금 등 기존 장학금의 범위 확대△김응운 후보는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대학원생 장학지원 강화△박정운 후보는 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설 및 확대 등을 통한 학생 지원을 제시했다.

③ 재정 안정화

△교육의 질 개선△학교 시설 개선△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 (이하 설캠 총학)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지원처의 운영계획으로 인해 사업지원처의 수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학교로 전출돼야 하는 수익금을 사업지원처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약 50억 원에 이르는 교비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는 △교육산업 및 지원사업 참여△발전기금 유치△산학협력 활성화△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종찬 후보와 박정운 후보는 재정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재정 현황을 구성원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중국언어문화학부 박흥수



우리학교 입학처장
現 우리학교 공자학원 원장
現 우리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박흥수 후보는 △메이터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확대 및 개선키 '버클리 음악대학(이하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및 게임 기업 유치△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통한 재정 혁신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흥수 후보는 학내 구성원을 위한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데이터 학술원 및 부속 연구센터를 설립해 우리학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글캠에 문화예술산업대학을 설립하고 버클리 음대를 유치해 △예과반 운영△버클리 음대와의 공동학위제 운영△버클리 음대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게임 기업인 '넥슨(Nexon)' · '라인게임즈(LINE GAMES)'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공학과, 실용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유학생을 하나의 단과대학·학부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유학생 교육지원센터 및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기호 2번 프랑스어학부 유기환



우리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우리학교 입학처장
現 우리학교 프랑스어학부 교수

유기환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국제화 교육△입학 혁신△재정 안정화△'SGS' 캠퍼스 조성을 제시했다. 유기환 후보는 외국어와 지역학에 집중했던 우리학교의 지난 교육 비전을 국제적 현장 교육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우리학교의 경쟁력 강화로 입학 혁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우리학교의 재정 관련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유기환 후보는 SGS 캠퍼스 구성을 강조했다. 이는 설캠(Seoul)△글캠(Global)△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Songdo)를 균형적으로 세분화해 캠퍼스 특성화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설캠 관련 전략엔 글로벌 한국학과를 신설하는 학제 개편과 더불어 글로벌 외국학 및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건물 신축과 재배치가 있다. 글캠 관련 전략엔 인공지능·빅데이터 융합 언어 공학을 중심으로 AI융합언어공학부 신설 및 외대역 마련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도캠 관련 전략엔 바이오메디컬공학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산업이 포함됐다.

기호 3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유경



우리학교 대외부총장
現 우리학교 국가브랜드연구센터장
現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경 후보는 △대학 경쟁력 확보△재정 안정화△학내 구성원 간 소통 확대를 위해 'HUFS(△Heritage△Universities△Future△Spaces)'란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내세웠다. H(Heritage)에선 기존의 특수외국어진흥교육원을 국가전략언어대학 '헤리티지 칼리지(Heritage College)'로 개선해 우리학교의 강점인 언어교육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U(Universities)에선 설캠 인근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주변 부지와 홍릉 지구를 활용해 한류 콘텐츠 교육 사업화의 신흥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Future)에선 국내 기업인 '카카오(Kakao)'와 협업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외협력△수업△학사△학생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의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단순화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S(Spaces)에선 글캠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글캠 스마트도서관 조성△용인-글캠-광주를 잇는 모현 터널 개통 동참△용인 소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학과 신설 등을 제시했다.

우리학교의 미래는?

행사하게 됐으며 △교수△교직원△학생은 각각 △90%△5%△5%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갖는다. 제12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주요 일정△후보별 공약△공약 총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④ 통보식 행정 개선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설캠프 총학의 ‘제12대 한국외대 총장 후보자 선거 학생 정책 요구안’에 따르면 학생 정책 설문에 참여한 90% 이상의 학생이 학사 행정 운영에서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글캠프 총학생회 ‘온(ON)’의 총장 후보자 요구 설문 ‘총장에게 바란다’에선 7개의 단과대 중 5개가 학생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모든 후보가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의 쌍방향적 소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흥수 후보는 총장과의 대화△유기환 후보는 학생 청원제 및 정례회의△김유경 후보는 미네르바 프로세스 및 공청회△최종찬 후보는 총장과의 핫라인(HotLine) 및 주기적인 간담회△김응운 후보는 소통 플랫폼 및 정례 간담회△박정운 후보는 외대 신문고 및 총장 오피스 아워(Office Hour)를 통해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⑤ 학내 구성원 복지 확대

1) 교직원 복지

모든 후보는 △교직원 급여 인상△연구지원 확대△자녀 학비 지원 또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흥수 후보의 연구소 지원△유기환 후보의 1교수 1조교 체제 확립△김유경 후보의 자율연구학기제 도입△최종찬 후보의 국제지역연구원 설립△김응운 후보의 연구시설 전면적 개편△박정운 후보의 미래 신산업 연구지원 확대 등 모든 후보가 연구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교직원의 일반 복지에 대해선 △최종찬 후보와 박정운 후보의 학과장 행정부담 완화△김응운 후보와 박정운 후보의 이중 소속제 장려△모든 후보의 교수 업적 평가 개선 등이 제시됐다.

2) 학생 복지

모든 후보가 △외국인 학생의 유치△학사 관리△학생의 국제교류 확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의 후보가 수강신청 제도 개선과 국제교류 대학 기관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박흥수 후보△유기환 후보△김유경 후보△김응운 후보는 고시반 확대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중전공 신청 및 강의 수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박흥수 후보△유기환 후보△김유경 후보△최종찬 후보는 이중전공 기회 확대 및 맞춤형 교과 운영을 위한 충분한 강의 개설을 제시했다. 이어 △김응운 후보는 학생들의 비교과활동 강화△박정운 후보는 학생주도 자기설계형 학습체계 구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⑥ 학제개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줄며 대학역량 개발이 중요해졌다. 대학역량 개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학과 교육과정 제시와 양캠프 간 중복학과 통폐합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모든 후보자는 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 실현을 위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학과 신설 또는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양캠프의 중복학과는 같은 계열 학문에 자원이 중복으로 투자돼 비효율을 적이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11대 총장 선거에서도 중복학과 조정 및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있었으나 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유기환 후보△김유경 후보△최종찬 후보△김응운 후보는 중복·유사 학과를 통합 및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흥수 후보△박정운 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혁신적인 융합학과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성적 평가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일부 P/F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상대평가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이 완화돼 이번 학기부터 A등급은 30%에서 35% 이내로, A등급과 B등급을 합한 비율은 65%에서 75% 이내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일부 학부 등의 타대학에선 교육의 본질과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성적평가방식을 교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평가 방식의 변경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는 등급평가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학내 구성원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 투표를 위해

지난 2017년 진행됐던 제11대 총장 선거에선 투표권을 갖지 못한 학생을 위해 총학생회 주최의 모의투표가 시행됐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투표권을 갖게 됐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우리학교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시점이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기호 4번 인도어과 최종찬



우리학교 미래위원회 위원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現 우리학교 인도어과 교수

최종찬 후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학제개편과 교육 혁신 △디지털 사업 추진△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대학 경쟁력 강화의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구축 사업 등에 진출해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학교 재정 운영 투명화와 수익 사업의 총장 책임제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중복학과 문제 해결△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특수 외국어 학과 생태계 보장 등을 통한 학제개편과 교육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교육 환경의 디지털 전환△미래형 교육 콘텐츠를 위한 투자△지식·정보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국제화된 우리학교를 만들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데이터 행정을 도입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연구사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투명하고 개방된 학내 소통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미래형 대학 경영의 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의 다국어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국제지역연구원 신설△외국어공학원 신설 등을 내세웠다.

기호 5번 프랑스학과 김응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주임교수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 학장
現 우리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김응운 후보는 ‘△꿈△세계△미래로 통하는 대학’이란 목표를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HUPS(△Humanity △Universe △Future △Self)’를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김응운 후보는 먼저 △인문학 특수대학원 설립△문화 기술 관련 혁신학과 신설 및 학제의 체계적 개편△평생교육 체제 도입△혁신학과 신설로 우리학교만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열려있는 교육체계를 약속했다. 또한 △비교과 활동 다면화를 통한 학생의 취·창업 지원 확대△스마트러닝 등 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제 공△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장학제도 개선△특수 전공 학문 후속세대 양성으로 학생들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생 생활 시설 및 교통 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확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내 연구 강화를 위해 결제 시스템 간소화, 연구 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행정 부담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 및 재임용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6번 ELLT학과 박정운



우리학교 대외협력처장
우리학교 영어대학 학장
現 우리학교 ELLT 학과 교수

박정운 후보는 ‘우리학교의 고유역량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이란 목표를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안정적인 자원 확보△지속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연구 체계 마련을 위해 △글로벌 전문기 양성 플랫폼 구축△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융복합 혁신 교육과정 재설계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1,000억 원의 발전기금 유치△신규 수익 모델 창출 및 기존 관리체계 혁신△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비등록금 수입을 확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예·결산 관리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독립적 운영△양캠프 부총장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 시스템 구축△전사적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등으로 행정 시스템의 지속화를 약속했다.



작지만 다채로운 나라 홍콩에서의 365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해외 산학협력 인턴십에 참가했다. 한 학기 체류가 목적이었지만 현지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업무에 흥미를 느껴 인턴십 연장을 결정했다.

출국 준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출국이 불확실해졌다. 또한 홍콩 시위가 계속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해외 실무 경험을 하러 출국을 감행했다.

해외 인턴십은 △문화△언어△환경이 다른 외국인인과 일을 할 수 있단 점에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와 다르다. 이 과정에선 △성실한 업무 태도 △유창한 비즈니스 회화 실력△우리나라와 다른 조직 문화에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콩에서의 생활은 고진감래였다. 사내 관계가 엄격한 홍콩은 공과 사가 철저해 동기와 식사를 하거나 남의 일을 돕는 경우가 드물다. 그럼에도 홍콩에서의 1년이 의미 있던 이유는 한 층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이다. 업무를 배우고 동기과 협력하기 위해선 먼저 살갑게 다가가 질문하



는 자세가 중요했다. 홍콩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때문인지 홍콩인은 외국인을 대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공문서와 회사 서류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선 △광둥어△영어도 중국어를 모두 접한 덕에 언어 실력이 향상됐다. 다양한 사람과 추억을 만든 것 또한 홍

콩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홍콩에선 지하철과 배를 타고 어디든 1시간 내에 갈 수 있어 주말을 이용해 △바다△산△섬으로 떠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홍콩의 눈부신 야경과 정신없는 도시의 풍경을 떠올리지만 홍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유롭고



조용한 분위기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인 만큼 홍콩 생활을 결정하기 전 금전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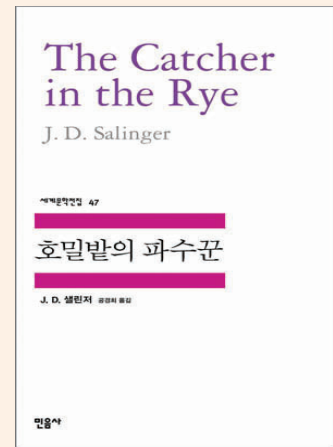
홍콩에서의 생활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단 점에서 의미 있다. 홍콩에서 경험한 사내 문화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외 유학을 꿈꾸는 학우들도 현지에서 부딪히고 경험을 쌓아 발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유진(중국 · 중언문 17)

미국

<호밀밭의 파수꾼>

-어른과아이사이의반항아-



미국의 유명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이하 셀린저)'는 1919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셀린저는 13살 때 맨해튼의 유명한 맥버니 중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퇴학 처분을 받고 펜실베이니아의 벨리포지 육군 사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하 2차대전) 중이던 1942년 봄엔 미국 육군에 징병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가한다. 중 ·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1951년 위대한 개츠비와 함께 가장 유명한 미국 소설이라 평가받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을 발표한다. 셀린저의 △고교 시절 기숙사 생활△부유한 집안 배경△전쟁 참여 경험은 이 책의 토대를 이룬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성적이 나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주인공 '홀든 콜필드(이하 콜필드)'가 뉴욕에서 방황하던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콜필드는 겉과 속이 다른 속물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을 싫어한다. 상대방의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가식적인 면이 느껴지면 속마음으로 가치없이 비난을 퍼붓는다. 콜필드의 시선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속물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콜필드는 어른을 싫어한다. 이는 1950년대 미국의 사회상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적 호황은 동시에 물질만능주의를 가져왔고 미국에선 정치적으로 무분별하게 상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매카시즘이 유행했다. 2차대전을 통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 청년들은 본인을 비트제네레이션이라 부르며 물질만능주의와 매카시즘에 빠져있던 사회 주류 어른들에 대항했다. 콜필드는 이런 사회층을 반영한 인물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은 콜필드의 바람이 담겨 있다. 콜필드는 속물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보다 호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파수꾼으로 남고 싶다고 여동생인 '피비'에게 물레 털어놓는다. 이는 사회 주류층에 편입되길 거부하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던 비트제네레이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피비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고 콜필드는 언젠간 본인이 꿈쩍이 싫어하던 어른이 돼있을 거라 말한다. 콜필드도 이를 예감하고 다시 밤늦은 뉴욕의 거리를 방황한다. 누구나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 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경험을 한다.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가. 또한 언제 어른이 됐단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글로벌캠퍼스의 1교시 우리가 구해드립니다.
구해줘! 빵차



▲2000년대 빵차



▲글로벌캠퍼스 원경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캠퍼스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크기에 감탄하곤 한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글캠의 정취는 우리나라 여느 캠퍼스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장대하고 아름답다. 글캠의 면적은 총 2,221,857㎡로 82,291㎡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보다 약 27배 크다. 전국 대학 캠퍼스 중에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다음으로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글캠 재학생에게 캠퍼스의 장대함은 자랑할 민하면서도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는 단점이다. 캠퍼스의 시작인 정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인문경성관까지의 거리는 대략 2km이다. 경사도 높기 때문에 걸어서 캠퍼스 끝과 끝을 이동하는데 성인 걸음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10분 남짓의 쉬는 시간에 캠퍼스 곳곳을 빠르게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해 지각이라도 하는 날엔 캠퍼스를 뛰어다니느라 기진맥진해질 정도이

다. 이에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캠퍼스를 이동할 수 있도록 1999년 9월 1일부터 교내순환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셔틀버스는 캠퍼스 입구 쪽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꼭대기인 인문경성관까지 학생을 실어 나른다. 글캠의 학생에게 셔틀버스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학생은 교내 셔틀버스를 '빵차'라고 부른다. 빵차란 이름을 얻게 된 데엔 당시 빵차의 외모가 독특한 역할을 했다. 사실 현재 글캠을 열심히 누비는 셔틀버스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다. 1999년 당시 식빵의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왕산 식빵차'라고 불리게 됐고 이것이 굳어져 고유명사처럼 쓰였다. 2008년 빵차의 색이 외대의 상징색인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버스의 크기도 점점 커져 식빵의 모습을 찾아볼 순 없지만 그때 부르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번역계 성인지 감수성, 정답과 오답의 경계는?

지난 9월 출간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번역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출판사 '올유문화사'와 '열린책들'은 각각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과 도스토예프스키 200주기 기념 전집의 개정판을 발간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쳤다고 전했다. 이에 독자들은 성인

지 감수성을 반영한 번역이 옳단 입장과 지나친 성인지 감수성 반영은 원문을 해칠 수 있단 입장으로 나뉘었다. 이장빈 우리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교수와 함께 페미니스트 번역의 △정의△경계△의의를 알아보자.

이상빈 우리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교수

Q1. 페미니스트 번역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페미니스트 번역(feminist translation)은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한 번역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또한 페미니즘 행동주의(feminism activism),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 중심의 글쓰기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Q2. 페미니스트 번역이 떠오르기 시작한 배경엔 어떤 것이 있나요?

페미니스트 번역은 수백 년 전 출판된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페미니스트 번역이 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캐나다 퀘벡의 페미니스트 작가와 번역가들 덕이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작가인 '니콜 브로사르'와 '마들렌 가봉'은 여성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해 실험적 글쓰기를 감행했죠. 이들의 프랑스어를 '비버라 고다르'와 '루이즈 폰 플로토우' 같은 번역가가 실험적 방식을 활용해 영어로 번역했어요.

Q3.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엔 어떤 성별적 특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말은 명사의 성별을 나누는 △스페인어△아랍어△프랑스어 등에 비해 문법 속에서 젠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성차별적 인식과 행위가 일상 언어에 투영되는 경우가 있죠. 가령 △'유모차'와 △'유아차' △'저출산'과 △'저출생' △'집사람'과 △'배우자'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도 이런 인식이 담겨 있어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직업을 표현할 때 '여-'란 접두사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숙녀' △'신랑신부' △'장인장모' 등의 경우 남성이 단어의 앞에 오지만 '연놈'이나 '편모편부' 같은 부정적 표현에선 여성이 앞에 오죠.

Q4.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반영한 번역 사례엔 어떤 것이 있나요?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Me Too) 운동’ 이후 출판된 번역서를 확인해 보면 기존의 성차별적 어휘가 여성 친화적인 어휘로 대체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래디컬 페미니즘 번역서를 보면 이 같은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젠 아들(子子)를 쓰는 ‘자궁’ 대신에 세포포(胞胞) 쓰는 ‘포궁’, ‘남녀’와 ‘부모’ 대신에 ‘여남’과 ‘모부’란 어휘가 등장하곤 합니다.

Q4-1.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번역이 논란이 됐던 사례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게임 회사가 “내 가슴만 보지 말고 일하라 가자”란 일문어 원문 대사를 “내 얼굴만 보지 말고 일하라 가자”로 번역한 뒤 곤욕을 치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런 번역이 원문을 훼손했다고 비난한 한편 일부 여성 이용자 사이에선 회사의 번역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지 않은 점을 환영했죠.

Q5.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번역의 오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젠더 갈등이 심화돼 특정 성별을 옹호한 번역은 큰 논란을 만들 수 있어요. 페미니즘과 관련된 번역의 평가는 수용 집단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기도 하죠. 페미니즘 방법론이 적용된 번역이 독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오역이 될 수 있습니다.

Q5-1. 페미니스트 번역의 원문 파괴는 의도적인 행위
인가요?

페미니스트 번역은 의도와 목적성이 분명한 번역 중 하나예요. 어떤 번역가는 작품 속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저자의 동의를 구한 후 원문에 없는 여성 인물까지 창조하죠. 페미니스트 번역가, 특히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자신의 번역이 조금이라도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독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사상을 번역에 투영해요. 그 예로 유혜담 번역가는 역자의 글에서 독자의 번역 관련 항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Q6. 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표현을 번역할 때 생기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레디컬 페미니스트조차 여성을 위한 글쓰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그들은 남성 중심의 담론 대신 여성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번역을 위해서 모든 언어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존의 언어를 파지며 번역을 한 사례로 유해담 번역가의 역시 '위안부는 여자다'가 있습니다. 유해담 번역가는 위안부나 성노예 같은 기존의 단어를 두고 맥락에 따라 △성착취 당했던 여자△성착취 제도에 묶인 여자△역류된 여자△인신매매된 여자△잡혀온 여자로 번역했죠.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수식어로 쓰더라

도함부로 정의내리지 않는시도를했어요.

Q7. 페미니스트 번역이 원작을 훼손하거나 재미를 반감시킨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독자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싶어 합니다. 설명 원문에 여성형 오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번역가는 이를 그대로 옮겨야 하며 독자가 이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우리나라는 원문을 지향하는 번역 규범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번역이 원작을 훼손하거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던 우려가 생기는 거죠.

Q8. 페미니스트 번역 방법론은 번역기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인가요?

페미니스트 번역은 원문으로부터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번역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페미니즘을 작품에 반영하는 번역가 사이에도 실험적 글쓰기를 얼마나 감행해도 되는지 이견이 존재해요. 번역가 사이에서 페미니스트 번역은 스펙트럼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고 페미니스트 번역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페미니스트 번역은 교육 기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일반적 개념의 번역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 체득하고 실천하는 실험적 번역이에요.

Q9. 페미니즘 번역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 번역 연구는 페미니즘이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Δ 변화 Δ 삭제 Δ 추가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글은 단순히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행동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페미니즘 번역 연구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다른 나라 독자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규명해낸단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10. 18(월) ~ 10. 22(금)	2021.11. 22(월) ~ 11. 26(금)
면접전형	2021. 11. 6(토) 10:00	2021. 12. 1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11. 9(금) 16:00 예정	2021. 12. 24(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11. 22(월) ~ 26(금) 예정	2021. 12. 27(월) ~ 31(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역사교육 •컴퓨터교육 •독서논술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이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가치의 무장 중립을 위해

이 세상엔 한 문제를 두고 여러 진영이 싸우는 일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주변 친구부터 정치인까지, 사소한 감정 문제부터 국가적인 규모의 문제까지 수많은 가치의 충돌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서로 누가 나쁜지를 가려냄과 동시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한 내 의견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재는 왜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를 안 하지? 이게 내가 잘못된 거야?”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난 슬며시 미소를 짓고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며 편을 들어주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성급히 결론 짓는 것 같단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지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요구하면 시시한 농담으로 상황을 얼버무렸다. 그게 내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들에게 나 공감할 줄 모르는 로봇 같은 인간이 될 뿐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이 같은 문제는 줄어들긴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변에선 젠더 이슈와 정치적 성향을 두고 누가 옳은가를 끊임없이 가리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자면 뇌피우스의 띠를 끝없이 도는 것 같았다. 문제의 중심부를 파고들수록 핵심은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어두운 심연에 빠질 뿐이었다. 결국 난 여전히 재미없는 농담이나 늘어놓는 괴짜로 남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내게 위로를 준 철학자가 ‘알프레드 에이어(이하 에이어)’였다. 에이어에 따르면 윤리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란 말의 의미는 논리적인 참·거짓과 다른 의미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행위는 사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마리가 풀린 기분이었다. 에이어에 의하면 주변 사람이 하는 싸움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애초에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과 그른 생각은 존재할 수 없으니 중립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괴짜 소리를 듣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숙고하는 태도가 더 가치 있던 생각까지 들었다. 에이어의 이론을 통해 그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소됐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하더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주변에 넘쳐났다. 누군가는 분명 부조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윤리 문제의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다 사실 너머에 여전히 더 큰 무언가가 스멀거리는 기분이었다. 그 존재가 뚜렷하지 않아 고민하던 참에 어떤 문구에서 참신한 답을 발견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이 있는 기자를 모집합니다’ 기사를 쓸 땐 옳고 그름을 기자 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학보 기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중립적인 시각을 추구하며 기사를 작성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중립에 대한 열망이 에이어의 이론을 발판 삼아 외대학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동시에 가치 중립을 지킨단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실감하고 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 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스위스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던 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힘이 있는 무장 중립국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실 속 감정적 판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학보 기자 활동을 하면서 나도 가치의 무장 중립을 위해 부단히 힘쓰려 한다.



장래산 기자

[책 ‘원더’를 읽고] 세상의 모든 ‘어기’를 위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뺨에 큰 화상 흉터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친구들은 그 아이를 골룸이라 부르며 멀리했고 나 역시 그 아이가 무서워 피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짝꿍이 돼 말을 트 후엔 그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 아인지 알게 됐다. 다르게 생겼단 이유만으로 멀리하기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쾌활한 아이였다. 책 ‘원더’는 어릴 적 그 친구를 생각나게 했다.

주인공 ‘어기’는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났다. 어기는 홈스쿨링을 하다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의 아이들은 남들과 다르게 생긴 어기를 괴물이라 부르며 괴롭힌다. 하지만 어기는 △교장선생님 ‘터시먼’ △누나 ‘비야’ △아빠 ‘네이트’ △엄마 ‘이자벨’ △친구 ‘잭’의 도움과 격려로 점차 자신감을 얻고 결국 모두와 친구가 된다.

타인과 다른다는 사실은 차별의 시작점이 되곤 한다. 차별과 편견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을 이용하곤 한다. 어기 역시 차별을 슬하게 겪었다. 어기가 지닌 트레처 폴리스 증후군은 머리뼈와 얼굴 부위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병이다. 증상과 신체적 특성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능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같은 반 학생과 학부모는 어기가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기의 외양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가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않다. 어기와 친구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끝난 책을 보며 난 쓸쓸함을 느꼈다. 현실과의 괴리가 느껴졌

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에 편견이 가득하다. 나와 다른 초등학교로 진학한 친구는 뺨에 화상이 있던 이유로 왕따를 당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의 뺨에 존재하는 상처는 없앨 수 없다. 바뀔 수 있는 건 그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수자는 사회의 만연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성소수자△장애인△저학력자 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국가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고용 차별을 금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기에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차별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타인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린 진정한 평등을 찾을 수 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시카고’를 보고] 무죄의 이유

‘시카고’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뮤지컬로 꼽힌다. 시카고는 뮤지컬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도 제작됐다. 또한 △골든글로브△미국 아카데미△영국 아카데미 등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시카고는 주인공 ‘록시 하트’ (이하 록시)의 살인 이야기를 다룬다. 그녀는 불륜 상대가 이별을 통보하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록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감옥에 수감되고 석방을 위해 시카고 최고의 변호사 ‘빌리 플린’ (이하 빌리)을 고용한다. 빌리는 피의자가 외도로 관심받을 수 있도록 선동해 지금까지 재판에서 무패의 승률을 기록했다. 록시도 예쁜 살인자로 관심을 받으며 대중의 동정심을 사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재판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록시는 비슷한 처지를 가진 유명 가수 ‘벨라 켈러’와 순회공연을 다니며 가수의 꿈을 이룬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시카고의 화려한 걸모습과는 상반된 △범죄자가 유명세를 펼치는 현실△부패한 언론△허술한 사법제도의 모습을 풍자한다. 록시는 ‘시카고의 가장 아름다운 살인자’란 이름으로 언론에 등장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이후 ‘키티’란 여성 범죄자가 외모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며 잊혀지는 록시의 모습은 그 당시 시카고의 외모지상주의를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 시카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04년

경찰서에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미혜는 남친과 함께 강도와 절도 행각 혐의로 체포됐다. 공개수배된 그녀는 예쁘다는 이유에서 유명세를 탔다. 사람들은 ‘강도 열짱’이란 별명을 붙이고 팬 카페까지 개설해 회원 수 6만 명을 달성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다. 이 밖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성희롱 및 성폭행△음주운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흉악한 범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외모만 보는 이런 현상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준다.

외모지상주의는 피상적인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외모는 인간의 가치 중 어떤 것도 대변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겉모습에 치중하느라 많은 걸 놓친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대할 때 본질을 놓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눠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100여 년이 흐르며 시민의식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는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이 여론을 이끌어도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올바른 판단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1061호 학보를 읽고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11월은 변화의 달이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엔 쌀쌀함이 한층 더해졌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을 공표했고 우리학교도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전의 자리를 되찾은 듯하면서도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먼저 3면에선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의 인터뷰를 다뤘다. 임기를 다해가는 김 총장은 8년간 총장직을 수행하며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기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과 차기 총장에게 바라는 점 모두 재정 관련 사안을 언급해 학교의 재정난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차기 총장도 향후 우리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힘쓰길 기대한다.

4면에선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의 가입준 부결 과정과 논란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학은 역사적으로 △대학 문화△사회△정치 변화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듯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5면은 ‘MZ세대’에 대한 시선을 다뤘다. 세대론은 우리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고 특정 세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정부나 교육기관이 특정

세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사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더욱 면밀한 세대 구분이 필요하단 점에 공감한다.

7면에선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의 진행방식과 그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을 다뤘다. 우리학교에선 비대면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축제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축제를 위해 힘쓴 학내 구성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이재묵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 생활속 학내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달부터 학생들은 교수님과 직접 소통하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비대면이 익숙해진 학내 구성원은 큰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대면 수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임채영(중국·중언문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61호 학보를 읽고

위드 코로나, 시국과 함께 학교도 변화한다

대면 수업이 시작된 후 캠퍼스가 북적해졌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분위기인지 모르겠다.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간 우리학교와 더불어 학생의 활기찬 대학 생활도 하루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3면에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과의 인터뷰가 실렸다. 김 총장은 그간 자신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 냈다. 그중 재정 여력 제고에 대한 언급이 가장 눈에 띄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과 송도캠퍼스 유치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우리학교의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면에선 우리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외행성’의 가입준 부결 사건이 다뤄졌다. 가입준 과정에서 발생했던 △종교2분과장과의 갈등△부결로 인한 논란△이후 외행성이 발표한 규탄문과 성명문 등을 통해 우리학교 내 성소수자를 둘러싼 입장이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소수자를 낯선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회 풍토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사를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동아리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5면에서 다른 ‘MZ세대’에 관한 기사도 인상적이었다.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MZ세대가 가

진 영향력은 크다. 또한 SNS를 통해 유행을 빠르게 선도하는 세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MZ세대가 기성세대에 의해 규정됐단 점은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MZ세대에 대한 과도한 편견과 일반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면의 쿼인아트리아 하이브리드 축제에 관한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대학 축제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특히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 Got Talent)’를 패러디한 ‘외대 갓 탤런트’와 ‘이(e)스포츠 대회’ 등은 디지털 대중문화에 익숙한 대학생의 이목을 끌만한 획기적인 콘텐츠였다.

시국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학교 학생의 학교생활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캠퍼스 정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본다.

최대한(국제지역·한국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 · 부장 고정칼럼

그들만의 학교가 아닌

이번달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후보)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 윤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과 다음 해 3월까지 맞대결을 펼친다. 하지만 유독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많다. 윤 후보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의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런 연유로 20대의 대선에 대한 거부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은 40%를 웃돌았다. 그리고 이는 곧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 후보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2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학교의 제 12대 총장 선거도 이번달 29일부터 진행된다. △교수△교직원△학생 모두가 투표권을 갖기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6명의 후보자는 표심을 얻기 위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관심가질 공약을 내세웠다. △인프라 개선△장학금 확대△재정 안정화△통보식 행정 개선△학내 구성원 복지 확대△학제 개편 등이 대부분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다.

이번 총장 선거에서 학생을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란게 눈에 띈다. 지난 총장 선거에선 각 후보들의 공약 전반에서 학생이 대상자인 공약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그리고 그 중 대상자가 학생인 공약을 가장 많이 내세운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이 제 12대 총장으로 당선됐다.

학생의 투표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2016년 학사 비리 사건으로 인해 학내 민주화 재정립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거셌고 그 일환으로 총장 직선제가 제도 입됐다. 대학은 모든 사회적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의존도는 70%가 넘는다. 이는 1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수치이며 사실상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5%의 수치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학생의 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총장 선거의 주체로 나설 의무가 있다.

한 명의 대학생으로, 그리고 20대 청년으로 우리는 각종 선거에서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고 있다. 부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가 이해 당사자가 돼 학교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되길 바랄 뿐이다.

김현익 편집장 01hyunik@hufs.ac.kr



요소수 사태를 통해 본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요소수 부족 문제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중국은 자국산 요소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요소를 일정 비율 희석하여 만든 요소수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사용된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와 승용차는 물론 항만운송, 산업용 장비는 작동을 멈춘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요소수 부족 사태로 우리는 산업생산은 물론 물류배송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까지 큰 차질을 겪을 뻔 했다. 다행히 대체 수입선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요소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혼합물로 생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은 정유산업이 발달한 관계로 원유로부터 추출한 나프타를 통해 요소를 생산했다. 반면에 중국은 매장이 풍부한 석탄을 통해 요소를 생산한다. 중국의 생산비용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결국 국내에서 요소 생산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한국은 국내 수요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고출력 대형 디젤화물차에 요소수를 사용한 저감장치가 장착되었다. 현재는 국내 디젤 화물차의 60%인 약 200만 대가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에 가입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산 석탄수입을 금지했다. 호주는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석탄을 수출하며 이 중 32%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중국의 보복조치는 자기 발등 찌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의 총 석탄 수입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이른다. 중국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석탄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했다. 중국 내 석탄 부족은 전기 생산과 겨울 난방, 화학 산업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석탄을 원료로 한 요소 비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중국은 지난달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원료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정 품목에 대해 중국 의존도는 왜 이렇게 높을까? 이 현상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국제 분업의 결과이다. 가령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선 3,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필요하다. 이런 공급망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 일컫는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글로벌 공급망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제 분업의 형태로 재편되었다. GVC를 활용한 국제 분업은 국가 간의 무역장벽과 갈등이 적을 때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미-중 패권경쟁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 분업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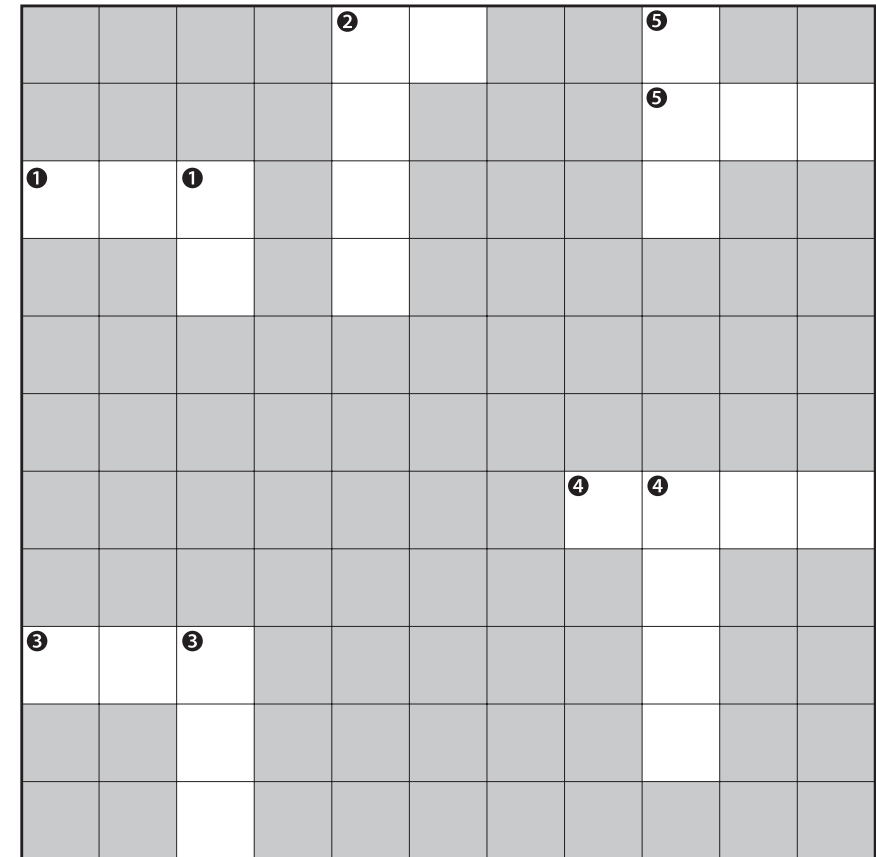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독일△미국△일본은 여전히 자국산 요소를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한다. 이 국가들은 내수시장이 크고, 자국 또는 자국의 영향력 내에 있는 이웃 국가와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1995년에는 6.4%였으나, 2020년에는 24.6%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품목 1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31.3%)에 이른다. 이중 중국의 품목 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다른 품목에 있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의 미-중 패권경쟁은 당분간 계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충격도 이러한 재편을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국제무역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품목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국가의 원자재 통제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경제적 수단도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수입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가로

- 그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 △국제교류팀 설명회△동아리 ○○○△방탈출 프로그램△진로취업센터 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3면 참조)
- 우리학교 제12대 ○○선거가 이번 달 29일부터 진행된다.(6면 참조)
- 성장 ○○○이 높은 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추진돼 온 것이다.(5면 참조)
- 지난달 6일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8살 홍정은 군이 요트 업체에 ○○○을 나가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했다.(4면 참조)
- 이지원 그림책 ○○○(이하 이 ○○○)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를 졸업한 뒤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w Poznaniu)에서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12면 참조)

세로

- 새로미는 이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근처 식당 '화덕'에서 ○○자리를 가졌다. (1면 참조)
- 이번 행사엔 양캠퍼스(이하 양캠퍼) ○○○가 참여했다. (2면 참조)
- 지난 9월 출판계는 ○○○감수성에 어긋나는 번역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9면 참조)
- 다음으로 △글로벌 봉사단 등 비교과 활동 다변화 및 지원 강화 △○○○ 개선△취·창업 지원 확대로 학생들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7면 참조)
- 진중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출자 및 재출자 기업을 한데 묶어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의 제2본사 도 지역에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5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1hyunik@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김현익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이지원 그림책 기획자

이지원 그림책 기획자(동유럽·폴란드 92)는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를 졸업한 뒤 아담 미초키에비치 대학교(Uniwersytet im. Adama Mickiewicza w Poznaniu)에서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볼로냐 도서관 한국그림책 전시 큐레이터와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알부스 갤러리 아트디렉터로 활동했다. 현재는 △그림책 작가△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강사△우리학교 폴란드어과 강사△폴란드 어린이 동화책 번역가로 활동하며 폴란드 그림책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획과 번역으로 폴란드의 낭만을 전달하는 이지원 그림책 기획자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폴란드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독특한 슬라브 문화와 폴란드 문화에 끌려 폴란드어
과에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동유럽 문
화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럽과는 다른 느낌이었습
니다. 특히 슬라브 문화가 이국적이고 신기하게 느껴
졌어요. 마치 한겨울 자작나무 숲에 흰 눈이 쌓여있고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컵에 보드카를 마시는 느낌이
들었죠.

Q1-1.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양 수업
보다 폴란드의 Δ 문화 Δ 언어 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전공 수업을 집중해서 수강했죠. 언어 공부라 즐거워
러시아어를 부전공하고 프랑스어를 따로 공부하기도
했어요.

Q1-2.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이 있나요?

다양한 학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1학년 땀 세계민
속축전에 참가해 '이끼씨들아, 숲으로 가자' 란 폴란
드 민요를 불렀어요. 이후 학과 신문 '휘뚜루' 편집을
맡았고 수지생이 돼 폴란드어 사전을 만드는 서류작
업을 도왔습니다. 폴란드에 한 달 동안 연수를 다녀오
기도 했죠. 학과 생활 외에도 음악 동아리 '마스터피
스'에서 만난 친구와 작은 연주회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며 추억을 쌓았어요.

Q2. 폴란드 어린이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폴란드 어린이 그림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 책에 담긴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지로 개념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태도가 거의 없죠. 또한 시각적 영감과 논리를 바탕으로 그림을 담아내 책을 구성한 단 점도 폴란드 그림책의 큰 매력입니다. 다만 허구가 바탕인 그림책의 경우 이해하기 난해한 경우도 있어요.

**Q3. △발가락△생각△할머니를 위한 자
장가 등 폴란드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작품을 대부분
번역했는데 이 작가의 그림책엔 어떤 매력
이 있나요?**

이보나 흐미멜레프스카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매력적인 작가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다가가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죠. 그림책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표현하고 작가의 페미니즘 성향을 깊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Q4.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작업했던 작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희경 작가가 글을 쓰고 '크리스티나 립카-슈타트 바워' 폴란드 작가가 그림을 그린 '지도는 언제나 말을 해'란 작품이에요. 지도에 대한 역사와 개념을 흥미롭게 설명한 책이죠. 판권을 폴란드와 독일로 수출해 독일 지리학회와 뽑은 이달의 책에 선정되고 독일 아동청소년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Q5.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폴란드 어린이 그림책이 있나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의 ‘두 사람’이나 ‘여자의 왕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며 ‘여자의 왕국’은 여성의 초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해당 작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Q6. 번역가로 일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폴란드에서만 출간된 좋은 책을 우리나라에 알릴 때 큰 보람을 느껴요. 전 번역 일을 하며 동시에 폴란드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든 그림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나라 출판사와 협업해 만든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작가의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 책이 저명한 상인 볼로냐 라가치(Bologna Ragazzi)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 작가와 우리나라 출판사 모두 영광을 얻었습니다.

Q7. 어린이 그림책 번역가의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린이 책 기획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다 보니 일반 문학 번역에 대한 의뢰는 적은 편입니다. 어린이 책은 비교적 글이 짧아 번역가의 번역 실력이 떨어지단 선입견 때문이죠. 하지만 제겐 ‘위처’ 시리즈와 같이 긴 소설 번역 작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어요. 장편 소설 번역은 어린이 책에 비해 고되지만 그만큼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책을 번역하고 싶어요.

Q8. 어린이 그림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러스트입니다. 그림책에서 일러스트가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림책에서 일러스트는 글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글과 어울려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요. △감동△심미적 경험△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림책을 고를 때 독자가 글보다 일러스트를 먼저 보는 만큼

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9. 앞으로 번역가로서의 목표와 번역가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번역가로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폴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번역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언제나 정확한 원문 전달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예요. 번역가에게는 원어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쉽다 쉬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금연치료 지원으로 금연에 성공하세요!



교육받을 필요없이 진료상담 **6회**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혼자하는 금연보다 금연 성공률 **6배** 상승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상담전화
1577-1000